



# 로덴나무그늘교회

2022년 교회 표어

[온전한 사랑으로 경계를 녹이는 교회 (요일 4:18)]

- 2022. 02. 06 주현절 다섯째 주일
- 오전 11시
- 친구사이 사정전 / 온라인 ZOOM

# 온라인 예배자를 위한 안내

1. 출석 확인을 위해서,  
ZOOM 이름을 교회 닉네임으로 바꿔주세요!
2. 신앙고백, 성서봉독과 공동축도 시간에는  
마이크를 켜고 한 목소리로 천천히 낭독하시면 됩니다.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는  
온/오프라인 사이에 딜레이가 있어서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3. 예배 후에 온라인에서도 나눔시간이 있으니  
바로 나가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부름  
(사회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고백  
(다 같이)

## [로템나무그늘교회 신앙고백문]

우리는 온 세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은혜로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매 순간 우리의 호흡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습니다.

아멘

# 선하신 목자

Martin Nystrom

기쁨찬양 선교단 역

찬양  
(다 같이)

선하신-목자- 날 사랑하-는분- 주 인도하-는곳-

따라가- 리 주의말-씀을- 나 듣기위-하-여

주 인도하-는-곳 가려 네 네 나를

푸른초-장과 - 설 만한물-가로- 내

선하신-목자-날인-도-해 험한 산과골-짜기-로

내가 다닐찌-라도- 내 선하신-목자-날인-도해 -

Copyright (C) 1986 Maramathal Praise Inc. Adm. By CopyCare Korea. Used by Permission.

[주님을 닮게, 존 베일리]

제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에서  
한 번 살고 가신 그 복된 생애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섬김을 받기 보다는 섬기려 하셨던  
그 분의 의지,  
모든 종류의 아픔에 대해 관심을 보이셨던  
사랑과 관심,  
당신 자신의 고난 앞에서도 드러내셨던 담대함,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던 온유한 참으심,  
그 단순한 삶, 자기 통제력,  
그 평정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오 하나님,  
그 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제게 은혜를 주소서.

아멘

[출애굽기 3장 1-14절]

성서봉독

1.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a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 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 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2.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3.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쩌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 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4.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5.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6.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뵈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7.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8.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9.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10.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

11.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12.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13.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야?’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설교  
(구현우 목사님)

# [ 나는 나다 ]

헌금

헌금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로 닉네임과 헌금 종류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약정, 주정, 십일조, 선교, 건축, 사랑)

카카오뱅크 3333 21 9744006

축도

- 구현우 목사님 -

1.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연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5일, 신규 확진자 수가 3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 거리두기 방침은 큰 변화 없이 2주 연장되었습니다.

확산세가 커지는 만큼,  
성도님들께서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백신 접종 및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 권장드립니다.

전면적인 온라인 전환에 관하여는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운영위원회 논의 후에 공지하겠습니다.

2.

예배 후에 월례회가 있습니다.

3.

2022년 약정헌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링크나 운영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2월 생일자는

아이작(2), 조성우(8), 꿈돌(12), 쉬턴(15),  
태권(23), 미가(28)

님 입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파송

## [아름다운 퀴어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퀴어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미움 다툼 혐오 차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